

6·25전쟁에서 김일성의 역할과 북한군의 전쟁수행

朴 憲 玉*

1. 서 론
2. 김일성(金日成)의 등장과 북한군 창설
3. 김일성의 6·25전쟁 계획과 스탈린의 승인
4. 북한군의 전쟁수행 평가
5. 결 론

1. 서 론

세계적인 탈냉전현상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만 존재하고 있는 냉전적 대결구조는 6·25전쟁과 그 후유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동안 치러졌던 이 전쟁으로 무려 500만명의 인명 피해와 1천만의 이산가족이 발생했으며 전체 가옥의 60%에 해당하는 293만호의 집과 건물 5만 3천동 파손, 그리고 철도·

교량 630km가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로서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부산물로 국토가 분단된데 이어 이념대결과 냉전의 희생물로 정권이 분단되었으며 동족상잔의 6·25전쟁으로 민족이 분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쟁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제2의 6·25전쟁을 방지하거나 재발시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과도한 국력을 투입하여 군사력 건설 경쟁에 몰두해 왔다. 특히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증강뿐만 아니라, 핵·미사일·화생무기 등 대량파괴 무기(WMD) 개발을 통한 비대칭전력을 강화하는 군사정책을 추진해 왔다.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실험을 단행하여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한 채, 한반도 안보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에 새로운 위협을 가하는가하면 세계 핵 확산방지체제에 도전하고 있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4년간의 6자회담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자 북핵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6·25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6·25전쟁의 기원과 책임에 대해 재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6·25전쟁과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북한 김일성이 스탈린과 모택동의 사주로 전쟁을 도발했다는 “전통주의”적 시각과 남한 내부의 계급갈등과 민족해방운동의 흐름이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수정주의”적 시각이 일반적이다. 전자는 한·미 양국의 다수의 연구자들이 소련의 팽창주의에 초점을 맞춰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려는데 반해, 후자는 일제치하에서 배태되어 해방공간에서 격화된 계급모순이 미국의 반공·반혁명정책과 충돌하면서 전면전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¹⁾

1) John Halliday, *Korea: the Unknown War*, London: Viking, 1988,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Korean War, Volume I: Liberation and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Korean War, Volume II: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북한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물론 6·25전쟁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특히 전쟁의 원인 및 개전 책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한국전쟁의 기원』의 저자 브루스 커밍스는 ① 북한 남침설, ② 남한 북침설, 그리고 한국이 함정을 만들었다는 ③ 남침 유도설 등 세 가지 설을 검토하고 결론은 “누가 한국전쟁을 시작했다? 이 질문에는 대답할 수가 없다”(Who started the Korean war? This question cannot be answered)²⁾고 했다. 아마 이에 대한 논쟁은 북한 김일성·김정일父子 체제가 끝나고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측 자료가 더 많이 개방되어야 조용해질 것이다.

그러나 냉전종식이후 러시아 측이 공개한 구소련의 6·25 관련문서는 전쟁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들어내고 있다. 특히 “러시아연방 대통령 문서보관소”와 “외무부 외교정책문서 보관소”에 있던 1949년 1월~1953년 9월까지의 6·25전쟁 관련 기밀문서 216건 548쪽 분량의 복사본을 열린 전 러시아대통령이 한국 측에 전달함으로써 6·25전쟁 연구에 매우 중요한 1차 자료로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³⁾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는 6·25전쟁에서 북한 김일성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북한군의 전쟁수행과정을 분석함으로써 6·25전쟁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해방이후 김일성이 북한에 등장하게 된 배경과 권력장악 과정 및 북한군의 창군과정을 살피고, 제3장에서는 김일성의 6·25전쟁 계획과 소련의 전쟁 승인과정을 분석하며, 제4장에서는 북한군의 전쟁수행내용을 단계별로 평가하고,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도출하기로 하였다.

2. 김일성(金日成)의 등장과 북한군 창설

(1) 김일성은 누구인가?

김일성, 본명 김성주(金成柱)는 1912. 4. 15일, 평남 대동군 고평면 남리(지금의 평양시 만경대)에서 출생했으며 1930년 11월부터 김일성(金一星)이라는 별명을 사용했고 만주지역에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1941년부터 소련군 극동군사령부 정찰여단(88여단) 1대대장(소련군 대위 임시계급)으로 활약하면서 김일성(金日成)의 이름을 사용했으나 김일성이라는 이름과 행적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의 대표적인 항일투쟁 사례로 “보천보 전투”를 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의회도서관이 북한정권 수립에 관여한 고려인 81명의 수기를 마이크로 필름화 한 바에 따르면 김일성이 이끄는 동북항일연군 제1군 제6사의 일부 병력이 1937년 6월 4일, 함경북도 갑산군 혜산진에 있는 일제의 관공서를 습격하고 보천보 일대를 일시 점령한 보천보 전투에서의 김일성은 김성주가 아니라, 김일성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일본 육사출신의 본명 김광서(함남 북천 출신, 1887-1937)로서 그는 일본군 파출소를 습격한 후 추격군과의 조우전에서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보천보 전투에서 북한 김일성이 주역의 역할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보천보 전투의 김일성 부각이나 1945년 10월 14일,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이른바 “김일성장군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 등은 소련 군정이 북한 공산정권수립에 이용할 목적으로 김일성을 지도자로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선전에 불과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가짜 김일성 논란은 허동찬의 “김일성 평전” 속(續), 이명영, 박갑동의 저술과 박금철, 박달의 진술 등에서 이어지고 있다.

2)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3) 외교통상부 사료, 『한국전쟁관련 소련 극비외교문서』, 1998, 극동문제연구소, “러시아제공 6.25 비밀문서”, 『극동문제』(1994. 9).

대일전에 참전한 소련의 북한 점령 의도는 관동군의 퇴로차단을 위한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친소정권을 수립하고 전한반도를 소비에트화 하여 소련의 지배권을 강화하겠다는 데 있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그리고 북한과 소련의 관계에 대해 스킨라피노와 이징식은 소련이 북한에서 정권수립이전까지는 점령군에 의해, 그리고 정권수립 이후부터는 소련대사관이 중요정책을 결정했으며 김일성은 소련에 의해 선택된 철저한 “외래의 괴뢰”(a puppet of a foreign power)였다고 주장했다.⁴⁾

김일성이 소련에 의해 북한지도자로 선택된 과정은 당시 소련 극동군 총사령관 바실레프스키 원수의 부관이었던 전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이반 이바노비치 코바넨코(1993년 당시 72세, 모스크바 거주)의 증언으로 들어났다. 즉 해방이후 소련군이 평양에 사령부를 개설할 무렵이었던 1945년 8월 하순과 9월 초순 사이에 스탈린이 소련 극동군 총사령관 바실레프스키 원수에게 “북조선은 소련의 뜻에 맞게 이끌 조선인 지도자를 추천해 보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극동군사령부가 김일성을 심사했는데 당시 극동군 관계자와 김일성의 대화는 다음과 같다.

“당신은 붉은 군대에서 계속 근무하길 원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북조선으로 일하러 가라고 제안한다면?/ 세계혁명과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면 항상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대답이요.”⁵⁾

소련 극동군사령부는 이러한 심사 끝에 김일성을 스탈린에게 추천했으며 추천서에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받고

4) Robert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 The Move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p. 317-318, 381-382.

5) 소련군 정치관계자, 즉 제25군 제7부의 메크레 소령 및 내무인민위원회 요원들이 김일성에 대해 “충분히 군사적 교육을 받았다”고 추천한 것이다. 북한정권과 김일성의 괴뢰성에 대해서는 시모토마이 노부오 지음, 이혁제 옮김, 『북한정권 탄생의 진실』(기파랑, 2004), pp. 76-79 참조.

있고 정신무장이 잘 되어 있음”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극동군사령부의 정보 및 정치공작 담당과장이던 그리고리 메클레르 예비역 대령의 회고에 따르면 스탈린은 베리야의 보고서를 읽은 직후 김일성을 비밀리에 모스크바로 불러 직접 면접했으며 이때 김일성은 황공하다는 표정으로 “예, 예”를 연발하자 스탈린은 흡족해 했다는 것이다.⁶⁾

여기에서 김일성이 북한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북한지도자로 지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련군정은 김일성이 북한에 들어온 후 25일 만인 1945년 10월 14일,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민족의 영웅 및 유명한 빨치산의 지도자로 소개했는데 이는 북한에서 지지기반이 취약한 김일성을 조기에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 김일성의 권력 장악

또한 소련군정은 김일성의 권력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스탈린처럼 개인숭배를 추진했다. 1946년 2월, 김일성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고부터 김일성을 “조선의 영웅 김일성”으로 부각시켰으며 48년 북한정권이 탄생하면서 “수령”으로 호칭했다. 그리고 소련은 6·25전쟁 중이던 1952년 4월, 김일성의 40회 생일에 맞춰 “원수” 칭호를 부여하였다. 소련이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추진한 것은 6·25전쟁에서 충성심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나 김일성 자신은 별로 한 것도 없이 북한의 지도자로 자리 잡은 것이다.⁷⁾

1945년 2월, 알타회담에서 소련의 對日참전이 결정됨에 따라 동년 3월, 스탈린은 멜레츠코프 대장 등에게 대일참전 준비명령을 내렸으나 그 당시

6) 『광복 5년사 쟁점 재조명 5: 김일성은 소련군의 심사를 받았다』, 동아일보 2004. 9. 12 일자.

7) 서재진, “항일무장투쟁과 소련의 김일성 수령 만들기”, 『해외자료로 본 북한체제의 형성과 발전 I』(신인: 2006), p. 48.

한반도에 대한 구체적인 점령정책은 확정되지 않았다. 소련은 대일 선전포고를 한 1945년 8월 9일, 제1극동군전선 예하의 제25군사령관 치스차코프(Ivan M. Chistiakov) 대장으로 하여금 북한으로 진격시켰다. 제25군은 소련 태평양 함대와 합동작전으로 雄基-羅津-淸津-羅南을 거쳐 8월 22일에는 元山에서 일본군을 격퇴함으로써 북한 동해안 점령임무를 완수했다. 8월 26일에는 치스차코프 대장이 평양에 도착하여 북한지역 점령 해방군으로서 도착성명을 발표하고 8월 28일까지 5개 사단, 1개 여단 총 12만 5천여 명의 병력을 신의주·개성·해주 등 북한 전역으로 진입 완료했으며 각도·시·군 단위까지 “소련점령군 지역사령부”를 설치하여 소련군정을 시작했다.⁸⁾

그러나 동년 9월, 스탈린이 내린 한반도 북부에 대한 점령방침은 놀랍게도 “반일·민주세력을 기초로 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적인 권력” 수립에 그치는 것이었다. 한반도는 동유럽과 달리 농업지대에 불과했고 노동자·회사원은 인구의 3%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⁹⁾ 또한 10월에는 로마네펬코가 이끄는 소비에트 민정부(民政部)가 점령정책을 시작했으나 평양주둔 제25군은 미하일 강 소령 등 12명의 소련군인(한국인)들이 통역을 담당했을 뿐 한국어 통역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다.

해방 후 6개월간(1945.8.15-1946.2.8)은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정이 軍權, 黨權, 政權을 만들어 급조된 지도자 김일성에게 몰아주는 작업을 완료한 시기였다.

첫째, 軍權은 무장단체를 장악하는 것부터 시작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22일까지 동해안에서는 소련군과 일본군의 전투가 계속되었으며 해방정국의 주도권 경쟁과 치안 혼란상은 극도에 달했다. 민족주의자인 曹晩植은 “平南建國準備委員會”를 구성하고 민족주의세력들을 중심으로 “自衛隊”를 조직하여 경찰업무를 수행

8) 장준익, 『북한 인민군대사』(서문당, 1991), pp. 27-30.

9) 시모토타미 노부오, 앞글, p. 78.

했으며 玄俊赫 등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은 “治安隊”를 조직하여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여기에 더하여 소련군정의 지원을 받는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한 “赤衛隊” 등 3개파의 무장단체가 난립했으나 1945년 9월 24일, 소련 군복을 입은 김일성 대위, 김책 대위, 안길 대위 등 40여명의 빨치산 출신들이 소련 비야츠크로부터 원산항을 거쳐 평양에 도착하자 북한주둔 소련군 사령관은 모든 무장단체를 “保安隊”로 통합하여 김일성 일파에게 넘겨주는 조치를 취했다.¹⁰⁾

둘째, 黨權은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 이북5도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13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10·14일, “조선인민해방 축하대회”-12월 16·17일, “북조선공산당” 개칭 등의 수순을 밟아 책임비서(당수)에 김일성을 선출함으로써 黨權을 장악하게 하였다.

셋째, 正權은 1946년 2월 8일, 평양에서 “북조선 각도 인민위원회 대표와 사회단체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어 “북조선 5도 행정국”을 폐지하고 그 대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결성했으며 위원장에 김일성, 부위원장에 김두봉, 보안국장에 최용건 등 17명의 각료급 요원들을 임명했는데 무소속 2명을 제외하고 전원 공산당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산당 단독정권이라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1946년 2월 8일 현재 김일성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행정부 수반), 북조선 공산당 책임비서(당수), 그리고 유일한 무장조직인 보안대까지 장악함으로써 소련 군정의 비호아래 북한의 전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그 후 김일성은 민족주의세력을 제거하고 단일후보 추천의 흑백투표를 통해 1947년 2월 17일,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48년 4월에는 소련공산주의를 모방한 인민헌법을 제정하고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

10) 1945년 10월 12일, 치스차코프 대장은 “소련 제25군사령관의 명령서”를 발표했는데 요지는 다음과 같다. “북조선지역내에 있는 무장단체를 해산하고 무기와 탄약 등 군용물자를 소련군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평민 중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인원수의 보안대를 조직할 것을 허락한다.” 김창순, 『북한15년사』(지문각, 1961), pp. 49-50.

원 선거 및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채택하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임했으며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수순을 진행했다.

김일성의 북한권력 장악은 소련의 사전 결정과 적극적인 후원에 의한 것으로 결국 소련이 북한에서의 최종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로서 김일성의 북한권력 장악은 곧 소련공산주의의 북한장악이 되어 6·25전쟁과 분단의 원인을 만들었다.

(3) 북한군 창설¹¹⁾

1948년 2월 8일 오전 10시, 평양역전 대광장에서 소련군을 모방한 계급장을 부착한 인민군 보병, 포병, 기동화부대로 구성된 1만명 내지 2만 5천명의 대병력이 소련제 기관총, 박격포, 대전차포, 고사포, 곡사포, 직사포, 그리고 모터사이클 등 신형장비를 갖추고 정렬한 가운데 조선인민군 창군행사가 거행되었다. 사열대 단상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북한의 사실상의 정부)위원장인 김일성을 비롯하여 북한 점령 제2대 소련군 사령관 코르트코프 중장, 인민군 총고문 스미르노프 소장, 인민군 장성 등 북한이 軍·政·黨의 핵심인사들이 참석했다. 여기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다.

“오늘 우리가 인민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 완전자주독립을 일층 촉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영웅적 소련군대가 우리민족을 해방시켜준 후 2년이 넘는 동안에 민주주의 완전 자주독립국가 건설에 모든

11) 북한은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을 공식 선포하고 이날을 창군일로 기념해왔다. 그러나 1978년 2월, “조선인민군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직접적인 계승자”라고 주장하면서 창군일을 4월 25일로 변경했다. 이는 김일성이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을 창립했다는 항일 빨치산활동을 부각하고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성을 선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토대를 튼튼히 닦아 놓았습니다. 둘째의 목적은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자주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북조선인민들의 그 고귀한 사업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인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¹²⁾

여기에서 들어난 인민군 창설의 두 가지 목적은 첫째, 조국의 완전한 독립, 즉 남북한 통일을 촉진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남북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북한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힘으로써 결국은 무력에 의한 남북통일을 목적으로 군대를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창군 당시 인민군 편성은 인민군 총사령부 예하에 제1보병사단, 제2보병사단, 제3혼성여단, 직속병원 등으로 구성되었고 총사령관에는 최용건, 총참모장에 강건이 임명되었다. 해방이후 불과 2년 6개월 만에, 그리고 북한정권이 수립되기도 전에 2개 사단 1개 여단 규모의 정규군대를 창군한 것은 소련과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일본의 밀착을 우려한 소련의 한반도 정책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북한군 창군의 주역들은 대부분 중국공산당 산하에서 항일전에 참여했던 자들과 소련군 출신 한인들이었고 과거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첫째, “빨치산” 계열은 김일성, 최용건, 김책, 강건, 안길, 김일, 최현, 김광협, 오진우, 최광, 박성철 등으로서 이들은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에서 조직한 “東北抗日聯軍”으로 1940년말까지 항일전을 수행하다가 일본군의 토벌에 쫓겨 소련령으로 도망했다. 그 후 소련군에 편입되어 훈련 중 해방이 되자 김일성과 함께 북한에 들어온 것이다. 이들은 창군뿐만 아니라, 6·25전쟁에서 주역을 담당했는데 김일성은 인민군 최고사령관, 최용건은 최고사령부 부사령관 겸 민족보위상(국방부장관), 김책은 전선사령관, 강건은 전선사령부 총참모장, 김광협은 제2군단장, 최현, 이영호, 유경수, 오진우, 최광, 박성철, 최충국 등은 사단장으로 각각

12) 『김일성 선집 1』(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pp. 356-359.

참전했다.

둘째, “조선의용군” 또는 “팔로군” 계열로서 무정, 김웅, 이상조, 박효삼, 이권무, 이익성, 김강, 방호산, 김창덕, 왕연, 박일우, 장평산, 박근일, 김창만, 이림, 이필규, 전우 등으로 1942년 중국 山西省에서 중국 八路軍 포병사령관 무정이 모택동의 지시에 따라 한인청년들을 모아 “華北 朝鮮義勇軍”을 조직하여 항일전을 수행하다가 해방 후 입북하여 창군에 가담하였으며 6·25전쟁 당시 무정은 제2군단장, 김웅은 제1군단장, 방호산, 김창덕, 전우, 이권무, 박효삼, 이익성, 장평산 등은 사단장으로, 이상조는 인민군 부참모장, 왕연은 공군사령관, 박일우는 대장으로 내무성 군대를 총지휘하는 등 6·25전쟁의 주역을 담당했다.

셋째, “소련출신 계열”로서 최표덕, 이동화, 강 미하일, 최홍극, 황호림, 최원, 최종학, 오기찬, 박길남, 문일, 이청송, 정율, 유성철, 정학준, 김봉률, 이종인 등 소련군과 함께 입북한 소련현역군인들, 그리고 남일, 김일 등 소련거주 한인 2세 민간인들로서 창군당시에는 간부학교 교관, 소련군 통역관, 민족보위성의 주요 참모부서에서 활약했으며 6·25전쟁 당시에는 전선사령부 작전국장(유성철), 포병국장(김봉률), 공병국장(박길남), 후방총국장(최홍극) 등 주요 참모직을 수행했으며 남일은 총참모장, 최표덕은 전차사령관, 한일무는 해군사령관 등으로 활약했다.¹³⁾

이렇게 보면 인민군 창건과 6·25전쟁의 주역은 중국과 소련에서 활약했던 한인들이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25전쟁은 소련과 중국이 한반도의 공산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일성 등 한인들을 앞세워 군대를 만들고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치르게 만들었으며 조국해방을 위한 정의의 전쟁이라는 명분과 개인적 영웅중의가 덧붙여져 민족적 비극이 연출된 것이다.

김일성은 소련 극동군 군사위원 슈티코프 대장에 의해 북한의 통치자로 내정되었으며 1945년 9월 19일 원산항으로 귀국할 당시에는 소련군 평양지

13) 장준익, 앞글, pp. 24-26.

구위수사령부 부책임자의 직책이 주어졌다. 6·25전쟁 당시에는 내각수상, 당 군사위원장(1950. 6),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1950. 7), 조선인민군원수(1953. 2)로서 6·25전쟁을 직접 지휘했다.¹⁴⁾

1994. 7. 8 평양에서 사망할 때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로동당 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았으므로 한민족사에서 동족상잔의 6·25전쟁과 과도한 전쟁준비로 2천만 북한동포들에게 가난과 고통을 안겨준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3. 김일성의 6·25전쟁 계획과 스탈린의 승인

(1) 김일성은 왜 남침전쟁을 희망했는가?

냉전종식 이후 밝혀진 새로운 사료들을 종합하면 6·25전쟁에서 가장 큰 책임은 북한 김일성이 져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특히 조선인민군 창군이후 김일성은 군사력 강화를 위해 군사훈련을 강조했다. 즉 김일성은 “우리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필승불패를 호언하던 강대한 군대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적을 과소평가하고 전투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가 불의의 공격을 당하면 당황망조하여 혼란에 빠지게 되며 자기의 힘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패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의 어떠한 공격이라도 격파할 수 있도록 준비된 태세를 견지하며 적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살피 적의 음모와 책동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¹⁵⁾라고 강조한 바 있다.

14)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북한연구소, 1999), pp. 258-259.

15) 『김일성저작집』 제4권, pp. 485-486.

북한 김일성으로 하여금 6·25전쟁을 발의하도록 자극한 원인은 좌우대립으로 혼란한 남한 상황, 북한내부의 파벌투쟁, 38선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사이의 빈번한 무력충돌, 국제정치적 상황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남한의 상황이다. 당시 남한은 좌익세력이 주도하는 폭동과 반란사건이 잇따랐다.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대구 폭동, 1948년 4·3 제주도 폭동과 10월의 '여순반란사건' 등이 잇따랐다. 이는 남로당 중앙지도부의 지령에 의해 군중의 불만을 조직적으로 활용하여 좌익폭동이나 반란으로 몰아간 사건들인데 김일성은 이를 보고 고무된 것이다. 좌우익의 극한 대립과 미군정의 미온적인 대처 등으로 어수선한 남한의 혼란한 상황이 김일성에게 전쟁을 결심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둘째, 북한 내부의 파벌투쟁이다. 1949년 6월, 북조선 노동당과 남조선 노동당이 합당하였다. 이는 남노당이 북노당에 병합·흡수된 것을 의미하며 박헌영 세력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정권 초기, 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에서 김일성의 경쟁자이며 조기통일을 주장하던 박헌영의 허를 찌르기 위해 남침전쟁을 도발했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공산주의 사상이나 민족해방투쟁 경력에서 자신보다 앞서는 박헌영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군사행동을 통해 혁명성과 투쟁성을 부각시키고자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 38선 부근에서 발생한 남북한간의 군사적 위기관계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남북한관계는 좌익에서 남북한 인민위원회를 조직코자한 1945년부터 46년까지의 정치단계, 1946년 말의 좌익반란 단계, 1948년 초부터 1950년 초에 이르는 좌익에 의한 비재래식 무장유격투쟁을 거쳐 1949년 초에 소규모 무력도발로 시작하여 한때 소강상태를 유지하다가 무장충돌과 무력남침으로 악화된 것이 6·25전쟁이라는 것이다. 결국 6·25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차례의 반란과 유격전 기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북한이 전면전을 시도한 것이라 하겠다.¹⁶⁾ 그동안 시도해 온 남

16) 김영준은 북한이 6·25 남침이전에 다음과 같은 6단계의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제1

조선 해방과 계급혁명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김일성은 6·25 남침전쟁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넷째, 국제정세 변화에 자극을 받은 것이다. 먼저 미국과 소련의 관계변화이다. 미국과 소련은 38선을 경계로 한 3년간의 군정을 끝내고 남북한 각각의 단독정부를 수립했으며 한반도에서 각각의 군대를 철수시켰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들의 문제가 되었다. 이는 1950년 1월 12일, 미국의 극동방어선에 한반도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애치슨 라인" 선언으로 더욱 분명해졌다.

결국 투철한 공산혁명가적 지도자 김일성은 한반도 공산화 통일의를 불태우던 중 소련과 중공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에 힘입어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을 도발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2) 스탈린은 어떻게 6·25전쟁을 승인하고 지원했는가?

사실 소련은 한반도 문제에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의 한반도 점령은 대일작전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1945년 6월 24일, 모스크바에서 유럽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있었고 소련군 총참모부가 대일전 작전계획을 완성한 것은 6월 27일이었다. 작전의 핵심목표는 만주에서 일본관동군을 격퇴하고 만주를 군사적으로 점령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동군의 증원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소련군은 만주와 일본 본토간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전략

단계(1947년 말~1948년 봄): 4·3제주 폭동 등 좌우갈등이 격화되는 시기, 제2단계(1948년 여름): 남노당과 미군정청이 경쟁적인 정부수립을 준비하던 시기, 제3단계(1948년 말~1949년): 여순반란 이후 대한민국정부의 존립을 위협하던 시기, 제4단계(1949년 봄과 겨울): 대한민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의 무장유격대 소탕작전을 전개한 시기, 제5단계(1949년 겨울~1950년): 적극적인 유격대 토벌작전으로 남노당 조직과 유격대가 와해되는 시기, 제6단계(1950년 봄): 6·25전쟁 직전 의도적으로 조용해진 시기. 김영준, 『6·25의 실상과 허상』(도서출판 원일정보, 1999), pp. 31-33.

거점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는데 여기에 라진, 청진, 웅기의 세 항구가 포함될 것이다. 소련은 이때부터 한반도정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¹⁷⁾

소련이 북한에서 친소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치기구를 수립하는 일과 최고지도자와 권력엘리트들을 친소인물로 채우는 것이 급선무였다. 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북한은 토착공산주의 세력을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25에 창당된 조선공산당은 파벌싸움으로 해산되었으며 일제의 탄압아래 명맥을 유지하던 소수 공산주의자들은 서울과 남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초기 소련군정은 민족주의자 조만식을 끌어들이려고 했으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는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실패했다.

따라서 소련은 북한 공산화를 위해 소련에서 살고 있는 고려인들을 차출하여 데리고 왔다. 첫째, 해방직후 소련군인의 신분으로 소련군과 함께 북한으로 들어온 그룹, 둘째, 1945년 9월부터 10월에 징병업무를 관할하던 특수기관인 군사 동원부를 통하여 선발된 자들로서 소련군 제25군 참모부 관할 하에 둔 그룹, 셋째, 1947년 이후 기술전문가 또는 정부기구내 각 분야 고문으로 파견된 그룹 등으로 총 428명이라고 정상진은 증언했다.¹⁸⁾

한편 북한은 1948년 한 해 동안 소련과 더불어 6·25전쟁을 위한 발 빠른 준비를 서둘렀다. 2월에 인민군대를 창군하고 9월에는 정권을 수립했으며 12월에는 북한주둔 소련군 철수에 이어 모스크바에서 북한군대 확장을 위한 전략회의가 열렸기 때문이다. 특히 소련군이 북한에서 철수하면서 육군의 전차 및 자주포, 중포, 중화기를 인민군에 이양했으며 공군이 사용하던 IL-10, YAK-9, PC-2 등의 항공기, 그리고 소련군사 고문관 3,000명을 잔류시킨¹⁹⁾ 것은 전쟁에 대비한 북한군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

17) 『광복5년사 쟁점 재조명4: 소련의 야심은 없었을까』, 동아일보, 2004. 9. 5일자.

18) 서재진, 앞글, p. 36.

19) 1948년 12월 25일까지 북한에서 소련군이 완전히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북한군 중대당 1명 기준으로 3,000명을 잔류시켰으므로 1949년 6월까지 주한 미군사고문단 500명(한국군 사단당 21명)보다 6배에 해당하는 소련군을 잔류시켰다.

는 것이다.

1948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소련, 중공, 북한 3국의 전략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전쟁준비문제가 논의되었다. 소련 국방상 불가닌(Nicholai, A. Bulganin)이 주재한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⁰⁾

- 1) 조선인민군을 향후 18개월 이내(1950년 6월 이전)에 북한으로부터 철군한 소련군에 대신할 만한 강력한 군대를 아래와 같이 편성한다.
 - ① 6개 보병사단을 돌격사단으로 편성한다.
 - ② 중공측은 북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한인계 중공군(동북 조선의용군) 약 2만-2만5천명을 입복시킨다.
 - ③ 돌격사단 이외에 8개의 예비사단을 편성한다.
 - ④ T-34 및 중전차 등 총 500대를 보유하는 2개 전차사단을 편성한다.
 - ⑤ 공군은 정치적 문제를 고려하여 당분간 편성하지 않는다.
- 2) 상기 내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소련 특별군사사절단”을 평양에 파견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정에 따라 “소련 특별군사사절단”이 편성되었는데 단장에는 초대 북한주재 소련대사 슈티코프(T. F. Shtykov) 대장, 기계화부대 전술전문가인 쿠바노프(kubanov) 중장, 정보전문가 자카로프(Zakalov) 장군 등 총 40명의 군사전문가들이 포함되었다. 이들에게는 1950년 6월까지 18개월 이내에 북한 인민군의 전력증강과 군사훈련을 완수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²¹⁾

1949년 3월 초, 소련은 중공과 북한의 수뇌를 모스크바로 초청했다. 김일성은 대표단을 이끌고 소련을 방문하여 3개의 협정을 체결했다. 첫째, 3월 17일에 체결한 “조·소 경제문화협정”은 물품교환과 지불에 관한 협정, 기술적 원조에 관한 협정, 1950년까지 총 5억 4,600만 달러의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내용의 비밀협정을 체결했다.²²⁾

20)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史 제1권』(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67), p. 705.

21) 북한연구소, 『북한군사론』(북한연구소, 1978), p. 226.

둘째, 같은 날 “조·소 군사비밀협정”을 체결했는데 주요내용은 6개 보병사단과 3개 기계화부대 편성에 필요한 무기 및 장비의 추가 원조, 7개 기동보안대대 편성에 필요한 장비의 추가 원조, 정찰기 20대, 전투기 100대, 폭격기 30대 추가원조, 120명의 특별군사고문단 파견, 10억원에 해당하는 물자지원 등이다.

셋째, 3월 18일, 소련 당국의 주재하에 중국과 “조·중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하고 “양측은 여하한 성질의 침략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방위하며, 어떠한 제국주의 세력이 북한 또는 중국을 일방 공격하는 경우 양국은 공동전쟁과 공동행동을 취한다는 것”과 만주에서 병력과 무기를 북한에 제공하고 양측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물물교환을 한다는 것을 약속했다.²³⁾ 이로서 스탈린과 모택동의 6·25전쟁 지원준비는 구체화된 것이다.

소련과 중공으로부터 병력과 장비를 지원받은 북한군은 1949년말까지 소련군 철수 전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전력을 확보했으며 소부대훈련을 거쳐 군단급 대부대훈련까지 소화하는 수준이 되었다.

1949년 말, 김일성은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스탈린을 만난 자리에서 “남한 동포를 이승만 압제 하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남침하기를 원한다고 전제한다면, 우리가 남침 공격을 시작하기만 하면 남한에서 민중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이승만 정권은 삼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라고 장담하면서 남침전쟁 승인을 간청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심사숙고하여 완벽한 계획을 작성하여 다시 오도록 지시”했다.

1950년 2월 중순에서 하순까지 김일성은 남침계획을 보완하여 모스크바를 다시 방문했다.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보고하기를 “본 계획의 성공 확실성은 절대적입니다”라고 호언장담했으나 스탈린은 미군의 개입 가능성에

22) 소련 프라우다 지, 1949. 3. 17일자.

23) 이 조·중 상호방위협정에 따라 1949년 7월에 1개 사단, 8월에 1개 사단, '50년 4월에 1개 사단 등 총 5만명의 중공군 소속 한인부대들이 북한에 들어갔다. 장준익, 앞 글, p. 115.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만일 전쟁을 신속히 종결지을 수 있다면 미군의 개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모택동은 스탈린의 우려에 대해 “김일성의 계획에 적극 찬동하고 김일성의 제의는 한국인 스스로가 해결하여야 할 국내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은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자 스탈린은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승인하고 “남침개시일은 1950년 6월 25일로 확정”했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 6. 25일로 택일한 것은 8·15 광복절 행사전에 종결, 쌀농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군력사용에 제한을 줄 수 있는 무기철 이용 등을 주장했다.²⁴⁾

이날 스탈린 별장에서 김일성을 위한 만찬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김일성은 “남한의 비옥한 땅과 풍부한 수산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남북한이 통일되면 북한에서는 공업용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고 남한에서는 풍부한 농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남북한 발전에 상호 큰 이익이 될 것”이라며 통일이후의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흥분했다고 한다.²⁵⁾

스탈린으로부터 남침전쟁을 승낙 받은 김일성은 북한으로 돌아와 극비리에 전쟁계획을 진행시켜오다가 1950년 4월경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열어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얻었다. 여기에서 김일성(정치위원회 중앙위원장)은 “조국통일에 관한 건” 보고를 통해 “현 단계에서 무력통일만이 유일하고 올바른 현실적인 정책임을 강조하고 정치위원회의 만장일치 지지를 요청”했다. 민족보위상이자 인민군 총사령관인 최용건의 남한군에 대한 군사보고가 있었으며 자리 순서에 따라 박헌영(정치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일성의 보고를 지지하는 발언과 함께 “남조선에는 현재 약 20만의 남조선 노동당원이 지하에서 투쟁하고 있다. 만약 인민군이 남하하면 20만의 남노당원이 일제히 일어서서 인민군의 군사작전을 원호하고 전 남조선지역

24) 소진철, “새 문서를 근거로 한 한국전쟁의 원인에 대한 재검토”,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6·25전쟁과 한반도 평화』(2000), p. 10.

25) Khrushchev remembers, pp. 367-373. 장준익, 앞글, pp. 148-151 재인용.

을 해방할 것”이라고 호언했다.²⁶⁾

(3) 6·25전쟁 계획

전쟁에서 작전계획은 건설공사에서 설계도와 같다. 북한의 6·25전쟁 작전계획은 북한에 의한 선제기습 전쟁이자 불법남침 전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준다.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950년 4월 중순, 민족보위성 총고문 바실리에프(Vassyliev) 중장, 인민군총참모부 고문 포스토니코프 소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새로운 소련 특별군사고문단이 북한에 도착했다. 지금까지의 소련 군사고문관들은 인민군 창군과 정치·군사훈련이 주 임무였으나 이들은 이른바 “작전통 장교”들로서 전쟁계획 분야 전문가들이었다. 당시 북한군은 독자적으로 사단급 이상의 대부대작전계획이나 제병합동작전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없었다.

당시 민보성 작전국장이었던 유성철(당시 대좌)은 1990년 한국에서 6·25 남침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950년 5월초, 강건 총참모장이 선제타격 작전계획이라는 제목의 러시아어 문서를 극비리에 번역하라고 주기에 받아 보니 남침용 작전계획이었다. 이것을 번역하기 위해 소련 2세 한국인 정봉률, 정학준, 박길남 등과 의논하여 5월 말경까지 완성했는데 번역작업과정에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중공군 출신 장교들은 제외한 채 민보성 별실에서 한글로 재작성했다”²⁷⁾는 것이다. 이로서 남침작전 계획은 소련고문관에 의해 작성되고 인민군 참모장교들이 번역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6·25전쟁계획이 소련군에 의해 수립되었다는 증거는 또 있다. 1950년 6월 18일자로 조선인민군 총사령부가 인민군 제4사단장에게 하달한 “정찰명

26) 박갑동, 『한국전쟁과 김일성』(바람과 물결사, 1990).

27) 유성철, “나의증언”, 한국일보, 1990. 11. 9일자.

령 제1호”가 그것이다. 소련어로 작성된 의정부-서울 축선을 공격방향으로 제시한 이 정찰명령은 대전 전투에서 노획되었으며 현재 원본은 미국무성 문서 제4266호로 보관되어 있다.

또한 1950년 10월 4일, 서울에서 노획한 인민군 공격작전의 정보계획(1950. 6. 20. 인민군 총참모장이 확인)은 6·25전쟁 작전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정보계획목표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정했다.

제1단계 작전은 인민군 총 10개 사단을 2개 군단의 공격집단으로 편조하고 1군단을 주공으로 금천-구화리, 연천-철원에서 38선을 돌파하여 서울을 압박하고, 2군단을 조공으로 화천-양구에서 38선을 넘어 서울 동측방과 수원방향으로 우회시켜 양개 군단의 협조된 포위공격으로 서울을 점령한 후 수원-원주-삼척선을 확보하도록 계획했다.

제2·3단계 작전은 제1단계 작전에 이어 실시되나 전략계획 자체가 서울이 점령되면 민중봉기가 일어난다는 상황을 대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국군의 조직적인 저항은 없을 것으로 가정하고, 제2단계에서는 신속한 전과확대로

<표 1> 작전단계 및 정보계획 목표

작전단계	작전지역	정보계획목표
제1단계 방어선 돌파 및 주력 섬멸	38도선 방어선 ↓ 서울(수원)-원주-삼척	- 전방방어체계 - 서울 방어조직 - 예비대 투입
제2단계 전과확대 및 예비대 섬멸	서울(수원)-원주-삼척 ↓ 군산-대구-포항(경주)	- 후방방어진지 - 사단의 전방이동 - 증원부대 및 물자유입
제3단계 소탕작전 및 남해안으로의 전개	군산-대구-포항(경주) ↓ 목포-여수-부산	- 접근로상의 방어조직 - 항구의 작업활동 - 항구의 방어대책

자료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1995), p. 78.

들어가 국군의 예비부대를 격파하며 군산-대전-대구-포항 선까지 진출하고 제3단계로 전환하여 잔존세력을 소탕하고 목포-여수-마산-부산 선까지 석권할 계획이었다.

북한의 전략계획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대병력이 동원되기 전에 이승만 괴뢰군대와 이미 우리 강토에 침습한 미군을 단시일 내에 소탕하고 인민군대가 부산, 마산, 목포, 여수, 남해 계선까지 진출하여 우리 조국강토를 완전히 해방하며 인민군대를 전 조선 땅에 기동성 있게 배치함으로써 미제국자들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했다.²⁸⁾

전쟁경험이 풍부한 특별 군사고문관들에 의해 작성되고 북한군이 번역하여 작성된 6·25남침전쟁의 계획에 대해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니키타 흐루시초프(1894~1971)의 회고록 『호루시초프 봉인된 증언』(1990)은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즉 “6·25전쟁에 대한 김일성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함에 있어서 나는 우리나라의 고문관들이 이 작전계획을 작성할 때 모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또 모든 지원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책임은 스탈린에게 있다”고 했다.

소련의 군사전문가들이 한반도의 지형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부대 기동계획은 수립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미국의 신속한 참전과 유엔의 폭넓은 지원을 예측하지 못했으며 특히 남한 국민의 반공의식과 저항정신, 그리고 국군의 용맹성을 과소평가한 책임은 스탈린과 김일성에게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북한의 남침전쟁 계획은 전쟁양상의 다양성과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기습도발에만 급급한 나머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실패작이라 하겠다.

28) 북한사회과학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5권(1981), p. 85.

4. 북한군의 전쟁수행 평가

(1) 전쟁 지도

전쟁의 승패는 국력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과 전략·전술·작전·전투를 통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전쟁을 지도하는 지도자와 지도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북한군은 1950년 5월말, 작전계획이 완성되자 6월에야 공식적인 전쟁지도 및 지휘체제를 구축하였다. 6월 10일, 민족보위성 총참모장실에서 사단장 및 여단장급 지휘관들이 비밀작전회의를 가지고 여기에서 사단급 부대 기동훈련을 가장한 남침 부대이동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때 2개 군단사령부의 창설이 결정되고 동일 제1군단(군단장 김웅 중장: 민족보위성 훈련국장)을, 6월 12일에 제2군단(군단장 김광협 중장: 인민군 제3사단장)을 각각 창설하였다.

그리고 6월 20일, 2개 군단을 지휘할 야전군사령부급의 전선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령관에 김책(부수상), 참모장에 강건(총참모장)이 임명되었다고 유성철이 증언했다. 그러나 조선전사 제25권에서는 7월 5일에 전선사령부를 창설함으로써 “전시 지휘체제를 강화하여 김일성의 지휘를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현하며 전반적 전선에 대한 지휘를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²⁹⁾고 했다. 전선사령부 편성일자 문제는 6·25전쟁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북침에 의해 갑자기 응전한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서 6·25전쟁을 위한 야전지휘체제는 조선인민군총사령관에 김일성을 비롯하여 전선사령부-군단-사단(여단)으로 확립되었다.

6월 25일에 남침을 개시한 북한은 6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29)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5』(1981), p. 162.

서 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김일성을 최고사령관에 임명했다. 군사위원회는 소련의 국방위원회(commissar)를 모방한 것으로 중앙과 지방을 망라하여 북한의 모든 정치, 경제, 군사적 역량을 전쟁 승리를 위해 총동원할 수 있는 전시 비상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7월 1일, 정령 발표를 통해 북한 전역에 동원령을 선포하고 연령과 기준에 따라 각각 영역의 의무를 부과했다.

북한이 이토록 사전 전쟁준비가 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지도는 효과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작전계획대로 서부의 제1군단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으나 동부의 제2군단은 국군 제6사단의 용전부투에 둔좌되어 3일 만에 수원을 점령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2군단장 김광혁을 보직해임과 동시에 군단 참모장으로 좌천시키고 제2사단장 이청송 소장과 제12사단장 전우 소장을 각각 해임하여 대좌로 강등시키는 등 지휘미숙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고위 지휘관들의 손실도 있었다. 전선사령관 김책(1903~1951)은 김일성과 함께 항일유격대 출신으로 북한정권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나 1951년 1월 31일, 전쟁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총참모장 강건(1918~1950)은 1950년 9월 8일 지뢰사고로 사망했다.

(2) 전쟁수행

북한 측 각종 문헌들은 6·25전쟁에 대해 “조국해방전쟁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력 밑에 우리 인민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미제국주의를 우두머리로 하는 외래침략자들과 이승만 괴뢰도당의 무력침공을 반대하기 위하여 진행한 정의의 전쟁”³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6·25전쟁 수행을 4단계

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이는 조국해방을 위한 정의의 전쟁이자 반제반미투쟁이며 세계혁명적 인민들을 고무충동하는 혁명전쟁이었다고 주장한다.

제1단계(1950. 6. 25~9. 15) 전쟁은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무력침공을 좌절시키고 높은 기동성과 연속적인 타격으로 남반부 전지역의 90% 이상과 인구 92% 이상을 해방시키는 등 정치·군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2단계(1950. 9. 16~10. 24) 전쟁은 패전의 위기에 몰린 미제국주의자들이 최후의 발악을 위해 추종 국가들의 병력과 태평양지역 미군을 총동원하여 낙동강 전선에서 반격을 가했으며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했으나 “적의 진공속도를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인민군 주력부대들을 구출하고 새로운 후비대를 편성하여 강력한 반공격집단을 형성하기 위해 전략적인 후퇴”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제3단계(1950. 10. 25~51. 6. 10) 전쟁은 미군의 어리석은 속전속결전략을 물리쳤으며 형제적 중국인민이 “항미원조보가위국”(抗米援朝保家衛國)의 기치 밑에 지원군을 파병하여 조선인민의 투쟁을 피로써 도와주었다고 했다. 김일성은 이 시기를 “한편으로는 우리의 역량을 정비강화하며 다른 편으로는 적의 역량을 부단히 소멸하는 전투를 진행하여 적을 약화시킴으로써 전쟁의 중국적 승리를 쟁취할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평가했다(김일성 선집 제12편, p. 446).

제4단계(1951. 6. 11~53. 7. 27) 전쟁은 1년 동안에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적극적인 진지 방어전을 전개하여 이미 차지한 계선을 완강히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갱도진지를 구축하여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고 곡사화력 증강, 습격전, 저격수활동, 탱크 사냥조활동, 비행기 사냥조활동 등 독창적인 전술을 개발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2000년도에 발행한 조선대백과사전에서는 6·25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콧대를 꺾어놓고 그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깨트려 버렸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이 내리막길에

30)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17)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 501.

들어서는 시조를 열어놓았다”는 김일성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으나 1950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평북(자강도) 만포 별오리에서 열린 노동당중앙위원회 제2기 제3차 회의에서 김일성은 “현 정세와 당면과제”라는 보고를 통해 전쟁 6개월간의 전략적 반성을 심도 깊게 실시한 것과는 판이하다. 여기에서 김일성은 단점 여덟 가지를 제시했는데 제시된 단점과 그 후 보완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예비대 준비부족 문제이다. 역습시 후방의 취약성을 절감하고 노동적위대, 교도사단 등 예비전력 확보를 위한 “전인민의 무장화” 노선을 채택했다.

둘째는 간부들의 지휘결함 문제이다. 일부 간부들의 비조직적 부대지휘와 더불어 정세판단과 난관돌파 능력이 미숙했으며 부대 통솔에 결함을 지적했다.

셋째는 부대규율성 문제이다. 지휘관들이 상부의 명령을 제때에 실행하지 않았으며 명령을 관철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간부의 자질과 부대지휘능력 향상에 관한 평가는 간부교육의 강화와 “전군의 간부화” 정책으로 발전했다.

넷째는 적들의 유생역량(有生力量)을 소멸하는데 소홀히 했다는 지적 문제이다. 적 지역에서 사람과 가축 등 생명체들을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들을 도망치게 만들었으며 곧 수습하여 반격할 기회를 허용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앞으로의 전쟁에서 철저한 유생역량 섬멸전을 예상하게 하는 대목이다.

다섯째, 공군과 해군의 포화에 준비하지 못했다는 문제이다. 즉 “우수한 공군과 해군과 포화들을 소유한 적들과 싸우는 특수한 조건에서 전투를 진행할 줄 몰랐습니다. 특히 적들의 공습이 심한 조건에서 산지전과 애간전투에 능숙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여 북한군이 당시 해·공군의 공격에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입증했다. 이로서 북한은 해·공군을 증강하고 산악전과 야간전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여섯째, 유격전 전개 문제이다. “적 후방에서 유격전을 전개하는 것은 우리가 공군이 약하고 기동성이 약한 조건하에서 적의 기동성을 파괴하며 적을 분산 격멸하며 적의 참모부와 후방을 습격하여 적후방에서 제2전선을 조직함으로써 적의 퇴로를 차단하여 적의 공포와 당황을 초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여 비정규전을 통한 제2전선 구축이 원만치 못했음을 인정했다. 이는 중공군의 유격전 상황을 기대했으나 남한에서 주민들이 공산군에 호응하지 않음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일곱째, 후방공급 및 군수보급 문제이다. “우리의 후방공급사업들이 잘 조직되지 못하였으며 후방기관들에는 많은 해독분자들이 잠입하여 전선공급에 방해를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후방 물자를 우리 부대는 제때에 공급받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여 당시 보급품 공급 부족을 시인했다. 전시에는 무기·탄약 외에도 군수·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투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군수산업제일주의로 전환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덟째, 정신무장 문제이다. “부대 내에 정치공작사업이 고도로 전개되지 못하였고 부대 내에서 고도로 되는 혁명적 애국사상으로 교양하는 사업이 부족하였다”고 하여 전투원의 전장이탈과 포로 방지대책에 소홀히 했음을 질타했다. 그후 군대의 정치사상교육 강화는 물론 전인민의 사상무장을 강조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쟁수행 평가는 6·25전쟁에 직접적인 책임자인 김일성 스스로가 내린 것으로서 북한의 군사정책과 전술교리에 근간이 되었다.

한편 북한군 창설과 군사훈련, 그리고 전쟁계획까지 수립했던 소련 군사고문단이 막상 전쟁이 개시되자 38선 이남으로 남하금지에 이어 미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에는 철수시킴으로 북한군 전쟁수행에 차질을 가져왔다.³¹⁾ 또한 북한군과 중국군의 연합작전도 북한군 총참모부와 중국인민지

31) 스탈린이 소련군사고문단을 철수시킨 것은 3일전쟁의 실패, 미군의 조기참전, 소련군 포로가 발생하여 6·25전쟁에서 소련이 참전했다는 증거를 남기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

원군 사령부 간에 연합사령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지휘권문제로 순조롭지 못했다.³²⁾ 국가간의 동맹이나 결속도 전쟁의 양상이 변하고 국익이 상충될 경우에는 이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5. 결 론

57년 전의 6·25전쟁은 지금도 불안한 휴전체제를 유지한 채 남북한 간의 군사대결과 동북아 및 세계평화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탈냉전이후 구소련 측의 기밀문서해제로 6·25전쟁에서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의 역할과 책임이 보다 분명해졌다. 즉 소련은 세계공산화 전략의 일환으로 한반도 공산화통일을 위해 김일성을 북한지도자로 선택하고 군사력 건설을 지원하여 6·25전쟁을 계획하고 지원했으며, 중국은 소련의 요구에 의해 지상군을 직접 투입하여 전쟁의 당사자가 되었으며 북한 김일성은 스탈린의 지령에 의해 충성스러운 전쟁집행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김일성을 북한 지도자로 선택하고 권력 장악을 지원한 것은 한반도 지배권 확대를 노린 소련의 계획이라는 것이다.

둘째, 북한군의 창설은 소련의 계획과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남침전쟁을 목적으로 창군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김일성이 6·25전쟁을 발의했으며 스탈린이 이를 최종 승인하고 철저한 준비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김일성으로 하여금 6·25전쟁을 일으키

이라는 분석이 있다. 안승환, “주 북한소련군사고문단의 북한군지원활동”,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2002), p. 450.

32) 양진삼,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사이의 모순과 갈등”,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p. 594.

도록 자극한 원인은 좌우대립 심화로 혼란스러운 남한의 상황, 심각한 북한내부의 파벌투쟁, 38선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사이의 빈번한 무력충돌, 국제정치적 상황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소련 군사고문관들이 작성하고 한국말로 번역된 작전계획의 개념은 제1단계: 3일 이내에 서울(수원)-원주-삼척까지 진출, 제2단계: 군산-대구-포항까지 진출, 제3단계: 목포-여수-부산으로 진출하여 남한 전체를 석권한다는 것이었다. 남침기동계획은 북한군 제1군단을 주공으로 서부의 개성, 의정부 축선을 통해 서울로 진격하게 하고 제2군단을 조공으로 화천, 춘천, 홍천을 거쳐 수원북방으로 포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다섯째, 북한군의 전쟁수행 내용은 성과적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제1단계 작전은 3일 만에 서울점령에 성공한 제1군단 진출이 지연되고 있는 동부의 제2군단과 전선조정을 위해 3일간 서울에서 지체함으로 미군과 유엔군의 조기 참전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제2단계 작전에서 포항-대구-마산을 연하는 낙동강 전선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했으나 국군과 유엔군의 효과적인 방어작전에 고전했으며 9·15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는 상황에서 제3단계 작전은 수포로 돌아간 채 압록강까지 추격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섯째,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는 8·15해방으로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내부적으로 단결하지 못했고 소련의 한반도 공산화 정책과 김일성의 영웅주의가 결합하여 전쟁을 유발했으며, 민족사 최대의 피해를 입힌 국제적 성격을 띤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휴전이후 반세기 이상이나 정전체제를 존속시킴으로 국력의 낭비와 민족통일에 장애물이 되는 등 민족사에 큰 오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곱째, 6·25전쟁의 가장 큰 교훈은 지도자의 상황 오판이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침전쟁을 시작하기만 하면 남한내부의 공산주의 세력이 봉기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그런 일은 없었

다. 한국인들의 문제임으로 미군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빛나가 유엔이 이를 “평화의 파괴”(breach of the peace) 행위로 결의하고 유엔군을 편성하여 응징하도록 했다. 또한 국군과 한국인들의 호국 의지를 과소평가하는 등 지도자의 오판이 6·25전쟁을 성공시키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공산화혁명을 주창하던 소련과 중국을 믿고 “조국해방전쟁”이라는 명분으로 남침전쟁을 일으켰던 북한의 김일성은 결국 전쟁에 실패했으며 국제사회와 민족사 앞에 역사적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원고투고일 : 2007. 3. 21, 심사완료일 : 2007. 6. 8)

주제어 : 6·25전쟁, 김일성의 역할, 북한군, 작전계획, 전쟁수행

<ABSTRACT>

The Role of *Kim Il-sung* and the Performance of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in the Korean War

Park, Hun-ok

This study purposes to shed new lights on the structure of the division between two Koreas and find out its implications on the today's military security by scrutinizing the role of *Kim Il-sung* in the Korean War, one of the greatest tragedies in our history, and the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war execution of North Korean People's Army (NKPA).

In order to analyze the role of *Kim Il-sung* in the Korean War and the issue of the NKPA's warfare execution, this study attempts to do the followings: First, it examines the background for *Kim Il-sung's* advent in North Korea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in 1945, and the process in which he assumed power under the shelter of the Soviet Occupation Army and established the NKPA. Second, it analyzes *Kim Il-sung's* scheme of war against the South, the process of the Soviet Union's recognition, and the contents of the military operational plan. Third, it evaluates the NKPA's execution of the war by its stages. Finally, it attempts to elicit the historical meanings and lessons of the Korean War.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oosing *Kim Il-sung* as the leader of North Korea and supporting him to grab power was the Soviet Union's plot to extend her hold on the Korean Peninsula.

Second, the NKPA was established, in substance, to carry out the invasion to the South by the Soviet's intention and support.

Third, *Kim Il-Sung* proposed the Korean War against the South and Stalin finally recognized and actively supported his proposal and its preparation. The factors that had spurred *Kim Il-sung* to wage the Korean war are the disorder in the ROK caused by the deepening confrontations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serious battles between factions within North Korea, frequent armed conflicts between two Koreas, and changes in the milieu of international politics.

Fourth, the operational plan for the war, which was prepared by the Soviet military supervisors and translated in Korean, was consisted of the following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to march into the line of Seoul (*Suwon*)-*Wonju-Samcheok* within three days, the second stage, into the line of *Gunsan-Daegu-Pohang*, and the third stage, to sweep over the entire ROK's territory by advancing to the line of *Mokpo-Yeosu-Busan*. The movement plan for the invasion to the South was to make the First Corps, as the main attacking forces, advance to Seoul through the western route of *Gaeseong* and *Uijeongbu* and to make the Second Corps, as the assistant attacking force, besiege Seoul by marching into the northern *Suwon* through the eastern route of *Hwacheon*, *Chuncheon*, and *Hongcheon*.

Fifth, the performance of the NKPA in the process of war execution was not quite satisfactory. At the first stage of the operational plan, the First Corps, which succeeded in occupying Seoul within three days, had wasted three more days in Seoul in waiting for the Second Corps that failed to advance on time. By this delay, consequently, the NKPA provided a chance for early entry of the US and UN troops into the war. While the NKPA succeeded in marching toward the *Nakdong* River Front of *Pohang-Daegu-Masan* at the second stage, it had to fight against heavy odds of effective defense operations by the ROK Armed Forces and UN troops. In the situation where the tide of the war began to go into reverse by the 9·15 *Incheon* Amphibious Landing Operations, the third stage of the operational plan could not be carried out and even resulted in a retreat to the *Amnok*

(*Yalu*) River.

Sixth, the historical meanings of the Korean War can be found in that the Koreans failed to unite themselves although they were endowed with a chance to establish an independent nation state by the 8·15 Liberation and that this failure, combined with the Soviet policy to communize the Korean Peninsula and *Kim Il-sung's* heroism, resulted in the tragic Korean War. Also the continuation of the cease-fire system over a half century since the Armistice has left a big stain on our history by causing serious waste of national resources and remaining obstacles to the unification.

Seventh, the biggest lessons from the Korean War is that a miscalculation of a political leader can provoke a tragic war causing enormous damages. While the Korean War was waged by the misjudgement of *Kim Il-sung*, Stalin, and Mao, it is evaluated as a failed war. Their anticipations that a mere opening of a war against the South would cause uprisings of the communists within in ROK and that the US troops would not intervene in the war were all wide off the mark. Rather the United Nations judged the war as "breach of the peace" and sent the UN troops to punish this behavior. Furthermore, the failure of the Korean War can be attributed to *Kim Il-sung's* misjudgement of underestimating the indomitable will of the ROK Armed Forces and South Koreans to defend the fatherland.

Finally, the Soviet Union, which had advocated communization of the world, was dissolved and *Kim Il-sung*, who waged the Korean War in the name of "Fatherland Liberation War," was responsible to the national tragedies and pains. A critical lesson from here would be that the only way to prevent the second Korean War is to bolster our deterrence sufficient to keep North Korea from anticipating a victory in a war.

Key Words: The Korean War, The Role of *Kim Il-sung*,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NKPA), Operational Plan, Warfare Performance